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8호 [루게 제 26082호] 주제 107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승리 65돐
 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
 신과 영웅적위
 혼은 조국청사
 에 길이 빛날것
 이라고 하시면
 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
 들, 새 세대들
 이 강대하고

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 으며 이어 화환전정곡이 울리는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
 하시였다. 동지, 전쟁로병들인 양형섭동지,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 히 계승해나가리라는 확신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 리명수동지, 태종수동지가 여기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하시였다. 표명하시였다.
 대장 김수길동지, 조선인민군 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 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
렬사보앞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



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
자로 생의 순간순
간을 빛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대회참가
자들은 변영하는
로동당시대에
부락을 누리며 여
생을 마음껏 즐길

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같은 은총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용 제 전쟁로병동지들에게 머리숙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 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 여 뜨거운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소 촬영장에 나오시자 로병들은 의 환호를 울리었다. 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히 간직하고 주세조선의 영웅 자애로운 원수님품에 달려가 안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 는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신화를 창조하던 그 정신으로 혁 며 뿜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로병들에 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 전쟁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후대를 명의 꽃을 계속 피워갈 열의에 었다. 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며 사회주 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 총만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 사들이 지냈던 조국수호, 혁명보위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65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릉원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5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 노광철동지가 화환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사존망의 엄중한 형편에 처하였을 때 목숨으로 정당한 위업을 수호하고 붉은 피로 평화를 이룩해낸 중국동지들의 위훈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예나 지금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믿음직한 형제의 나라, 위대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긍지스럼

진정행사에 참가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군종병예위병대가 정렬하여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

군렬사릉에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뒤편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이러한 모안영동지의 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하였다

모안영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모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건국초기의 많은 곤난을 무릅쓰고 자기의 끝끝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서슴없이 파견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승리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땅의 산천조목에는 중국동지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는 조선혁명가들의 넋이 잠들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종관계는 결국 지리적으로 가깝와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피와 생명을 바치며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수하고

고 생각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위훈을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가는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도덕의리이며 숭고한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여러곳에 있는 지원군렬사묘소를 친현육파도 같은 뜨거운 정을 다해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제 5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진 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진승의 사활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가는 승리자들의 환희가 온 나라에 자넘치는 속에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맺은 전쟁로병들과 전사장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사장로자들이 흘리는 속에 전회의 군복을 입은 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자의 공지와 영예를 안고 4.25문화회관 대회장으로 들어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항일혁명투사들이 된 최동지, 김철만동지, 리영숙동지와 양형설동지, 리명수동지, 태풍수동지, 최영립동지, 리용우동지, 오국렬동지, 김시학동지 등 비롯한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박광호

동지, 김평해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래성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김수길동지, 리영길동지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에는 심,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과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진승신화를 창조한 전쟁로병들의 애국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들였다. 대회에서는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온 나라 전쟁로병들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리한 태양이시며 필승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오

으며 사회주의조선의 강대한 힘과 기상을 높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사 김정은동지께 최대한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오. 그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장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을 불피지는 거룩한 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혈사들에게 경의를 보내었다. 또한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어깨걸고 피흘려 싸운 중국인민지원군혈사들과 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보병총과 원사단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증유의 판가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원술, 탁월한 명군술의 빛나는 승리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군, 전민을 원주적

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깃부서버리도록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전승을 안아오는 나날에 영웅한 인민군용사들은 영원불멸한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수령의 두리에 결사의 정신력으로 통쳐진 군대와 인민은 불레이러는 켈리를 역사에 आरो세기였다. 이것은 전회의 로병들이 피로써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준 무언이 귀중한 재부이다. 인민군용사들은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존엄있고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성세, 당배가 되어 전진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님의 군사전략사상과 명명지시를 결사 관철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화같은 애국의 정신으로 한 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냈으며 필승

의 심신과 막판, 결사의 의지로 만년시련을 뚫고나가는 백철불굴의 무정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무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 대중적영웅주의, 군사혁명정신은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군사적기적을 남긴 불패의 힘이였으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한 사상정신적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밑에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이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7.27의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에 련전연승하여올수 있었다. 최룡해동지는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수십년간 우리 로병들이 화선명사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당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전쟁로병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음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들고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적명도를 결사옹위하는데 앞장

섰으며 지역전쟁의 기치높이 천리마대고 조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로병들은 조국수호의 진승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었으며 당의 전승업적을 후대들의 심장속에 심어주며 군력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당과 국가, 군대의 골간으로 내세우시고 끝없이 아끼시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최룡해동지는 조선혁명의 승리사를 동지에, 전우애의 새 전설로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사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온갖 은성을 다 물려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6 면 으 로 계 속



축 하 문 제 5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참 가 자 들 에 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둘째 해를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동원력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예순다섯째를 맞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혁명의 2세, 로혁명가들을 축하하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넋을 이어 주체조선의 강성한 기상을 펼쳐갈 새 세대들의 의지를 과시하는 뜻깊은 대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거창치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고 대대손손 빛내여갈 고귀한 승리전통을 창조한 로병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걸출한 수령, 강철의 영광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자기의 부모형제와 고향산천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의 항전에 떨쳐나선 정의의 대오는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은 나라를 조국보위성전으로 불어일으키고 천세적인 군사전략과 명철한 전법으로 역광상 비탈 바닷물이 우세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참패를 안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명도는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적위훈의 주인공으로, 불사신의 투사로 키우고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진승기적을 탄생시킨 무한한 원천이었다.

백두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정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인민군용사들은 로화를 세치는 전격로병과 결전장들에서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결사판철하였으며 혁혁한 무공으로 조선인민군의 위훈을 떨치고 공화국의 불패성을 과시하였다.

비록 정규군의력사도 짧고 무장장비도 미약하였지만 소중한 모든것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유령무명의 수많은 전사들의 대종적 영웅주의에 의하여 침략자들의 모험적인 공세는 결음마다 여지없이 분쇄되었으며 조국의 산야들에는 승리의 기쁨이 높이 휘날리었다.

전선과 후방에서 낮과 밤이 마르없는 3년간의 치열한 백열전을 벌여 승리의 7.27을 떠올린 위대한 전승세대가 있었기에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역사의 성새로 솟아오르고 영웅

조선, 영웅인민의 참모습이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수령의 부름따라 전투복 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무거운 역사적 과제를 기꺼이 떠메고 천리마의 나래를 펼치었으며 병진의 초행길을 돌파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였다.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참가자들이 있지만 우리 로병들처럼 존엄한 전장에서 승리를 떨치고 조국건설의 앞장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참된 영웅, 열렬한 애국자들은 찾아볼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전사의 영웅들과 먼저 간 전우들의 흉까지 합쳐 히리미를 조이며 강국의 미진을 다진 로병동지들의 값높은 헌신의 자욱자욱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공화국의 통일면역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내어갈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목적으로 사수하고 간고한 투쟁의 천만리길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뿌린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세계 《희망》을 지지하던 제국주의강적을 마승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전쟁은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시킨 귀중한 사상정신적원천이며 오늘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총결기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대전군을 떠밀어주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장그러 말할하려는 전대미문의 압박을 막고 순간도 멈추없는 공격전을 벌려오는 나날에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주적인민의 정신력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을 발휘하는가를 특별히 실감하였다.

전회의 나날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며 조국의 부강안녕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로병들의 넋원을 실천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총발동하여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로 집중같이 돌진할것이며 로병동지들이 지켜낸

이 땅의 모든것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의 재부로 꽃피우기 위하여 열사목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것이다.

리수복과 강호영, 안영애의 영웅정신을 배우며 자라난 공화국의 새 세대들은 선현들의 붉은 피가 스민 혁명의 총상, 계급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로병동지들의 무박대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본받는 전사회적인 기풍과 관습속에서 로당인강하며 후대들에게 신념의 대, 충정의 바통을 이어주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기를 바라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로병동지들이 보여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영웅적투쟁의 모범을 따라배우며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력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자력부강의 전군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7 (2018)년 7월 26일

제 5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진 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5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병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진승절을 크게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전원렬사묘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친 영웅전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 주시겠다고 그는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속에 우리 전쟁로병들의 불멸의 공적과 값높은 삶은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세월과 더불어 세대를 이어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천하제일강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언제나 승리의 7.27만을 이는 영원한 진승국으로 위용될것이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출현 로병들의 붉은 피는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종해봉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넋과 전통을 이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줄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전쟁로병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혁명대오의 전열에서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것처럼 한생을 다투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의 생동한 제형자로서 우리 당의 진승업적과 진승세대의 투쟁정신, 투쟁정령을 후대들에게 길이 계승시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조국경사수호정신을 계승하는 심장마다에 단장약하고 단결대결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지도계를 존중히 세우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완벽한 최정예의 근위대로로 강화하며 당의 자위적군사료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로병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이어받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김정은시대의 청년영웅이 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최후대, 불적대의 영예를 펼쳐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회의 투쟁정신, 군사혁명정신으로 경제건설대군을 힘있게 벌여 공화국정권 일흔둘째를 맞는 로혁명적사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전사라는 긍지를 안고 한생을 빛내게 총회할수 있도록 심성사로 돌봐주어야 한다.

최종해봉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전무에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은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라고 하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로병들을 대표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전구장동지가 새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대하고 의의있는 대회에 로병들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축하문까지 보내주시며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조국은 곧 수령이며 수령을 한몸삼배처럼 받드는 길에 조국의 존엄과 영예도 있고 강성면역도 있다는것이 진승세대가 오면 세월의 인형세함을 통하여 간직한 진리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병들이 몸은 비록 늙었지만 불타는 락동강을 건너던 그 정신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조국을 떠안드는 역전 부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새 세대 일꾼들과 군인들, 청년들이 우리의 운명이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동지를 더 잘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바탕, 눈비를 다 맞으시며 멀고 험한 길을 취임없이 걸으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정을 지켜드리고 보고를 멀어드리며 현수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여 태양의 나라를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어줄것을 그는 절절

히 부탁하였다.

이러 인민군대를 대표하여 조선인민군장병 김충철동지, 청년들을 대표하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경의 토론회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년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전위들의 마음을 담아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로병동지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우적정례를 드렸습니다.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로병동지들은 수령을 어떻게 경사보워야 하고 침략자들은 어떻게 때려부셔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귀중한 혁명선배들이며 더없이 훌륭한 스승들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병동지들이 발휘한 수령경사용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종적영웅주의는 주체조선의 영원한 넋이며 후대들이 풀려말아야 할 가장 값높은 정신적재부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령보위를 백송의 묘대로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경사보워하는 전진감각의 천원요새, 역혁의 무적방면벽이 될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백송의 묘도마라 조국보위의 전초선에서 심장의 피를 땀을 뿜으며 혼연일통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오늘의 총동원전에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후손들이 어떤 사함들이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앞에 특별히 보여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불길 속을 헤쳐온 진승세대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변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제일결사대, 당이 부르는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정년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불굴의 투사가 될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년을 맞으며 진행된 제5차 전국로병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마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주체조선의 자랑스런 승리의 력사본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전민군인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다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과 비약의 기상이 만방에 힘입고 파시되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 총동원이 명백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7.27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인민에게 전대미문의 광화를 들끓게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아낸 공적은 수호자들의 명절이다.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이 침략자들에게 수지스리온 대참패를 안기고 나라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낸것은 거대한 역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반제투쟁사에 빛나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김세의 애국자로서 탁월한 통솔의 장렬의 명장이시다.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65년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여 높이 모시고 전승의 환희와 격정에 넘쳐 환호성을 터치던 력사의 그 날을 강회같이 돌이켜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강철의 평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다혈력 군사전략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몸을 사명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승리였다.》

일제의 식민지탄압에서 갖 해방된 우리 인민과 청소년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힘겨운 전쟁이었고 사생결단의 싸움이었다. 보병들과 원사들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리라하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세상사람들의 우려와 예상을 뒤집어엎고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제국주의합력세력을 타살하는 군사적기적이 조선에서 창조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펼쳐진 한몸을 사명없이 바치면서 영웅적투쟁을 벌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결사의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존엄한 전파의 나날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전승명장을 전후에 높이 모시고 자기의 사상과 위업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는 군대와 인민은

만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적재지와 탁월한 명도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군사적재지는 전쟁전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던 결정적요인이었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한 극시적인 반공적전투에 대한 포위작전, 강도전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과 전술, 전법들은 세계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특장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대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며 불멸의 영웅사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술적우세로 압도하며 현대전쟁사에 특기할 기적을 창조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전법들의 비상한 견인력과 영리한 생명력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세계는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탁월한 통솔의 장렬의 명장의 천출위인상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제국주의강적을 타살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 영웅적인민으로 자랑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바탕으로 굳게 뭉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승리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기둥, 승리의 상징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결 처절한 전파의 나날 언제나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 후방인민들과 함께 제시하신 그들을 조국보위정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불비운 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며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용사들을 영웅적 위훈으로 고무해주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명장을 세계전쟁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운신 뜨거운 어버이사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천우적렬의 의지를 태워해주었다.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생선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으며 후방의 인민들은 포연속에서 발을 잡고 땀으로 피대를 뚫리며 전선생산을 보장하였다. 각지에 인민은

적대와 소년별파산들이 조직되어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수령과 전민군민이 용맹공동체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조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낸 전민항전이라는 조국해방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전승의 축로가 미처오면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지난 65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1950년대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주체혁명적 명백을 고수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전진시켜온 공적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압력, 제제봉쇄책동을 짓부셔 혁명과 전진에서 눈부신 성과를 세기적변혁이 촉발되는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승업적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힘있게 파시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전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의 귀중함을 더욱더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1950년대의 승리의 전통이 있어 우리는 오늘날도 영원히 혁명을 펼쳐갈것이라는것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맥박치는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우리의 식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재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천만대적 이 엄비되어도 끄떡하지 않고 견결히 맞서 싸우는 결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절대성되었다. 반제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지평과 풍부한 경험이다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에서 자주적근위병의 영예를 펼쳐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우리가 천수만의 항시적인 침략위협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생 눈길을 곱잡아야 해쳐올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수호하려는 정신이 강렬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혁명장군으로 키우시고 온 나라를 금성혁명의 요새로 억척같이 다져놓으신것은 후손만대의 영리한 행복을 담보하시려는 드림있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존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경사수호정신이 자라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기에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전 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

패의 보루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시기 불변불류의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반제대결전에서 변천변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명도밑에 승승장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떠세우시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결승의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가시는분이 우리의 최고령도자동지 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우리 조국을 결사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로 계속전진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자기 힘을 천배로 다져 번영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강력의 강자들의 대군을 키우는 자랑분이다.

백두대령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정신의 고귀함과 위력은 위대한 전승사의 갈피마다에 력벽히 새겨져있다. 존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힘을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더욱더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밑에 자력의 힘으로 초흐란을 만들고 전진시장을 보장하며 침략자들을 타살한것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가 그토록 귀중한것이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자기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총만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정령 못한 요새가 없다는것이 지난 65년간의 력사적투쟁속에서 뚜렷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국의 참뜻을 깨달았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체득화하였으며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고결한 인생관을 깊이 새기었다. 전파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구현해오는 나날에 우리는 세계를 주름잡는 눈부신 비약도 이룩하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천수님의 명도밑에 만 단년인축사에 일찌기 있어오지 못한 대비 약력적인 이 기록되고있는 오손의 격동적 인 현실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력자강에 밝다문 번영이 있다는 신념을 태백해주고있다.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과 백절불굴의 정진력을 세세년년 이어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만년제보로 틀어쥐고 우리 힘, 우리 식으로 기어이 이

땅에 원하게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레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흔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주체조선의 발전행로에 아로새겨진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우리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며 세계가 우리앞으로 인민의 확신으로 일떠세우려는것이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열망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인민의 모든 꿈과 비상이 현실로 펼쳐질 광휘로운 때일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념에 넘쳐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총력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져올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제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장구한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신 승리로 이끄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 개척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얼마나 거대한 업적으로 되는가를 배추같이 새겨야 한다.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교양기념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모든 사업을 오직 수령님선대로, 장군님선대로 해나감으로써 주체조선의 백성의 력사와 전통이 면면없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재지와 비범한 명도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회색의 정기가, 천출명장을 대를 이어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수령전사수호를 삶의 첫째가는 목표로, 혁명자의 가장 값높은 영예와 분분으로 여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천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 천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충정의 일편단심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착 뿌려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수호하여야 한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몸이 일포각, 백포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수령의 명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떨치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오늘의 경제건설전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결승의 무기로 삼고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교지를 앞당겨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지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앞으로 공화국창건 일흔흔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랑스런 로력적산물을 마련한 공지와 자람을 안고 9월의 태극전장에 멋있게 나서야 한다.

전제 인민이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사상공세를 드세지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전승세대가 발휘한 수령전사수호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전령의 승리를 위하여 자력갱생의 아주적극적수호에서도 식량생산과 전진수출, 전선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하루하루를 자랑스런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사회주의신념을 간직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혁명적의욕, 계급적의욕을 철저히 고수해나갈수 있어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전령로병들과 전사공로자들을 존대하고 위배하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전령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똑똑히 알고 배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모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언제나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 외 연교자가 족들 꽃바구니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를 26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실동모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꽃바구니의 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모시여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 외 연교자가 족들 꽃바구니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를 26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실동모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꽃바구니의 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모시여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 외 연교자가 족들 꽃바구니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를 26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실동모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꽃바구니의 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모시여있었다.

본사기자

김영남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발래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 가이움각하

나는 말디브특별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7월 26일 평양

김영남동지에게 투르크메니스탄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지나르 루스케모바 주조 부르크메니스탄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외무성 부상 신희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 외 연교자가 족들 꽃바구니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를 26일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실동모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꽃바구니의 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모시여있었다.

본사기자

김영남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발래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 가이움각하

나는 말디브특별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7월 26일 평양

김영남동지에게 투르크메니스탄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지나르 루스케모바 주조 부르크메니스탄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외무성 부상 신희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세스코준비위원회가 19일 부다페스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마샤르 돌라시 위원장 부로 프루마르 돌라시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숭배하도록 대중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전진하며 강연회, 업적포럼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세스코준비위원회가 19일 부다페스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세스코주 부사상인 유 및 구원호 위원장이며 백두산세스코조선전선전위 위원장인 요제프 세르비시타가 선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